

##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조궁호 · 김은진

서강대학교

개인주의 사회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내집단에의 동조 행동이 더 크다는 사실을 문화 내적 비교의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고등학생(연구 1)과 대학생(연구 2)을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로 나누었을 때, 전자의 또래동조성이 후자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내집단과의 유사성을 더 크게 지각하며, 이러한 경향은 동조를 많이 하는 집단의 특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내집단과의 유사성 지각이 집단주의 사회에서 동조 행동을 크게 하는 원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동조 행동의 가치에 대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권의 인식의 차이와 그 근거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문화성향, 또래동조성, 집단중심성향자, 개인중심성향자, 허구적 합의성, 유사성 지각의 비대칭성

사물의 움직임을 판단할 참조 기준(frame of reference)이 전혀 없는 장면에서의 판단(Sherif, 1935)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선분의 크기 비교와 같은 정답이 100% 분명한 장면에서도 자신의 견해와 다른 집단 압력이 주어지면, 개인은 집단의 판단을 추종하게 된다는 사실이 Asch(1951, 1952, 1956)의 시원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 이후 이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동조(conformity) 행동이 집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이고도 근본적인 현상(Cialdini & Trost, 1998; Friend, Rafferty, & Bramel, 1990)이라는 전제 아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비교적 최근까지 이의 문화차는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Moscovici, 1985).

그러나 집단 규범에의 동조가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진화를 촉진시키는 적응적 가치를 가지는 행동임이 밝혀지고(Campbell, 1975; Lumsden, 1988; Moscovici, 1985; Taylor, Peplau, & Sears, 2000; Triandis, 1989, 1990; Valentine, 1997), 동조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의 특징적인 독립적 자기관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자기와 집단에 대한 대안적 견해의 필요성이 대두되자(Cialdini & Trost, 1998; Markus & Kitayama, 1991, 1994, Triandis, 1994), 문화유형에 따른 동조 행동의 차이 문제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예: 조궁호, 1999a, 2000; Bond, 1988; Bond & Smith, 1996; Furnham, 1984; Mann, 1988; Triandis, 1989, 1990, 1994, 1995 등).

\* 본고의 연구 1은 선기 필자의 지도로 후기 필자(김은진, 2001)가 서강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이고, 연구 2는 전적으로 선기 필자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연구 2의 결과 처리 과정에서 황미구·김미랑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또한 본고의 초고를 읽고 귀중한 시사를 해준 세 분의 심사자에게도 감사드린다.

동조 행동의 문화간 차이를 비교하는 개념들은 다른 사회 행동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문화 비교 연구들의 기초가 되어 온(Kagicibasi, 1994) 집단주의-개인주의(collectivism-individualism)의 차원이었다. 여기서 집단주의는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문화유형이고, 개인주의는 북미와 서유럽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문화유형이다(Hofstede, 1980, 1983, 1991).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므로, 타인에게 단결심·공손함·배려성·소속감 등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내집단(ingroup)과 동일시된 자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조를 소속과 자기확대의 수단으로 보아 중시하게 된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독립성·자립을 강조하므로, 타인에게 스스로의 독특성과 수월성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 사회의 사람들은 타인과 구획되고 분리된 개체로서의 자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조를 비독립성이나 비자율성의 표출로 보거나, 자기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계산의 결과 나오는 행동으로 보기도 한다(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Bond & Hwang, 1986; Bond & Smith, 1996; Chung, 1994; Markus & Kitayama, 1991, 1994; Taylor et al., 2000; Triandis, 1989, 1990, 1994, 1995; Valentine, 1997 등).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동조량이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동조량보다 크다(조금호, 1999a, 2000; 한규석, 1991; Bond, 1998; Furnham, 1984; Mann, 1988; Triandis, 1989, 1990, 1994, 1995; 등). 이러한 사실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문명화되지 않은 자급 자족 경제(subsistence economy) 생활을 하는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다. Berry(1967)는 에스키모(Eskimo)족(수렵·채취의 개인주의자), 스코틀랜드인(산업 사회의 개인주의자), 서아프리카의 템네(Temne)족(농경사회의 집단주의자)의 세 집단에게 Asch형 동조 실험을 실시하여, 각각 17.2%, 26.7%, 58.9%의 동조량을 보임을 밝혀 내었다. 그(Berry, 1979)는 또한 문명화되지 않고 자급 자족 경제 생활을 하는 17개 부족을 생태·문화적 지수(ecocultural index)에 따라 집단주의적인 농경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인 수렵·채취 사회

까지 대체로 등간격으로 배열했을 때, 이들의 생태·문화 지수와 수정판 Asch형 동조 검사에 의한 동조량 사이에  $r = .70$ 의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밝혀 내었다. 즉, 집단주의적인 농경·정착 사회일수록 동조량이 커지고, 개인주의적인 수렵·채취·유목 사회일수록 동조량이 작아졌던 것이다.

최근에 Bond와 Smith(1996)는 지금까지 문명 사회의 17개국에서 이루어진 133개의 Asch형 동조 행동에 관한 실험 연구들을 사후 종합 분석(meta-analysis)해 본 결과, 각 나라의 개인주의 수준과 동조량 간에 강력한 부적 회귀계수( $\beta$ )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내므로써, 문화유형에 따른 동조 행동의 차이는 문명 사회에서도 일관성있게 나타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즉, Hofstede(1980, 1983, 1991), Schwartz(1994) 및 Trompenaars(1993)의 개인주의 척도에 의한 각국의 개인주의 점수와 동조량 간에 강한 역상관이 있음이 밝혀져, 집단주의 사회일수록 동조 행동이 많고,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동조 행동이 적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는 집단주의-개인주의의 문화적 가치가 동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의 크기나 자극 애매성 등 다른 요인들의 영향보다 훨씬 큼이 밝혀짐으로써, 동조 행동의 제1 중재 변인은 문화적 가치임이 드러나고 있다.

문화적 가치와 관련해서 여기서 한 가지 고찰해 볼 것은, 어느 한 사회의 문화가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라고 해서 그 사회의 성원들이 모두 집단주의자 또는 개인주의자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Bond & Smith, 1996; Schwartz, 1992). Triandis(1989, 1990, 1994, 1995; Bontempo, Lobel, & Triandis, 1990;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 Gelfand, 199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Triandis, McCusker, & Hui, 1990)는 문화 수준에서의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양극 차원이 한 개인에게 공유될 수 있음을 밝히고, 문화 수준에서의 집단주의-개인주의를 개인 수준에서는 집단중심성-개인중심성(allocentrism-idiocentrism)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집단중심성향자는 집단주의의 문화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개인중심성향자는 개인주의의 문화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Triandis(1994)에 따르면,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많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고, 집단주의 사회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즉, “만일 한 문화 내의 개인들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체로 집단주의적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집된다면, 우리는 그 문화를 집단주의라 부르게 되며” 따라서 “우리는 ‘이 문화 내의 70%의 사람들은 집단주의자이고, 30%는 개인주의자이다’와 같은 식의 진술을 할 수도 있다”(Triandis, 1994, p. 42, 인용문 속의 따옴표는 원문 그대로 임)는 것이다.

Triandis는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Triandis et al., 1985, 1988, 1990)과 집단주의 사회인 일본과 푸에르토리코(Triandis et al., 1988)에서 이 두 성향자를 구별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 수준에서의 문화성향은 한 문화 집단이나 사회 내의 개인적 행동 및 적응 양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Bontempo et al., 1989; Triandis, 1989, 1990, 1994).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김의철, 1997)과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차재호·정지원, 1993) 및 20~50대의 기업체 종사원들(한규석·신수진, 1999; Cho, 1994) 사이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단주의적 가치가 혼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가 혼재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규석(1995)은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우리 사회에서의 이 두 문화성향자의 여러 차이를 밝힌 연구들을 개관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의 차이는 그대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문화차와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보면, 집단주의-개인주의 사회에서의 동조 행동의 차이는 그대로 집단중심성향자-개인중심성향자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된 동조 행동의 문화차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집단주의 사회와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동조 행동의

차이, 즉 문화간 비교 분석의 방법에 의한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동조 행동의 문화차가 사실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간 차이가 한 문화권 내에서 응답자들의 문화성향의 차이와 관련해서도 나타나는지 하는 문화 내적 분석의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볼 필요가 있다.<sup>2)</sup>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을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로 나누었을 때, 전자의 동조량이 후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확인해 보므로써, 동조 행동의 문화차에 관한 전술한 이론적 추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증해 보고자 한다.

## 연구 1

지금까지 개인주의 사회에서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동조 행동이 더 보편적임을 살펴보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Bond & Smith, 1996; Triandis et al., 1988). 중국의 학생들은 같은 지위의 동료들 간에는 동조가 크지만(Ho, 1979; Meade & Barnard, 1973, 1975), 낯선 사람에의 동조는 아주 작다(Bond & Hwang, 1986). 같은 경향이 일본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일본의 학생들은 동조 실험 장면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친구들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동조를 많이 하지만, 낯선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때에는 동조를 거의 하지 않거나(Mann, 1988; Matsuda, 1985; Triandis, 1989; Williams & Sogon, 1984),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인 반동조(anti-conformity)의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Frager, 1970).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하여 Markus와 Kitayama(1991)는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낯선 사람들로 구성되는 Asch형 동조 실험 장면에서 일본 학생들의 동조량이 미국의 학생들보

2) Triandis, McCusker, Betancourt, Iwao, Leung, Salazar, Setiadi, Sinha, Touzard와 Zaleski(1993)에 의하면, 문화 비교 연구는 문화간 비교 분석, 문화 내적 분석, 범문화권적 분석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범문화권적 분석은 문화차는 무시하고, 여러 사회에서 얻은 응답자들의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문화 비교 연구라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문화 비교 연구는 문화간 비교 분석과 문화 내적 분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1) 한규석(1991)은 *idioncentrism*을 홀로성향, *allocentrism*을 두레성향이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문화 차원과의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개인중심성-집단중심성이라 부르고 있다.

다 적었다는 결과는 피험자들이 압력 집단을 낮은 외집단(outgroup)으로 지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Bond와 Smith(1996)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집단주의자들은 내집단 성원들에게는 동조를 잘 하지만, 외집단에 대해서는 거의 동조를 하지 않는다(Bond & Smith, 1996; Smith & Bond, 1993; Triandis, 1989, 1990).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동조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시사를 해주고 있다. 즉, 집단주의자들도 사회 압력에 저항해서 자신의 지각·태도·신념 등을 유지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타인에의 동조는 고도로 높이 평가되는 목표상태로서, 이는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욕구와 바람을 조절하고 타인에게 화답하려는 용의성의 표현”(Markus & Kitayama, 1991, p. 247)인 것이다.

문화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한 문화 내의 문화성향의 차이에 따라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의 동조 행동이 개인중심성향자들의 그것보다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들”로 구성된 내집단인 또래집단에의 동조 행동이 피험자의 문화성향(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에 따라 과연 예측한 대로 의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동조 행동의 문화차에 관한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체로 대학생들이었다(Allen & Wilder, 1977; Bond & Smith, 1996). 그러나 대학생들이 각 문화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대학생들은 어느 문화 집단에서나 가장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차재호·정지원, 1993). 따라서 동조 행동의 문화차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연령층의 연구들에서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들이 얻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개인주의적인 대학생 집단과는 달리 어느 문화권에서나 또래집단에의 소속 욕구와 동조성이 가장 강한 연령층인 청소년 초기의 고등학생(Brown, Clasen, & Eicher, 1986; Newman & Newman, 1976)에게서도 개인중심성향자들

보다 집단중심성향자들의 동조 행동이 더 크게 나타나 는지를 확인해 보려 하였다.

## 방 법

### 실험 참가자

서울과 서울 근교의 신도시 분당에 위치한 6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36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설문지에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았거나, 한 문항에 대해 중복된 답을 한 경우 등 부적절하게 설문지에 응답한 96명을 제외한 총 540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은 218명(40.4%)이었고, 여학생은 322명(59.6%)이었다.

###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 1쪽의 내외통제성 척도, 7쪽의 또래동조성 척도가 사용되었다. 성별과 가정의 경제생활 정도(상·중·하)를 기술하게 되어 있는 연구 전체 소개문(평소 생활 태도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소개한 다음, 개인의 응답은 전체적인 통계 처리 자료로만 사용될 뿐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는 12줄 짜리 글)을 제일 첫장에 넣어, 이 세 척도와 함께 모두 11장으로 소책자를 구성하였다.

**문화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개인중심성-집단중심성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Singelis 등(1995)이 제작한 INDCOL척도를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이었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vertical/horizontal)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수직적 유형은 불평등을 수용하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수평적 유형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수직적 개인주의자(VI)는 경쟁적이며 남들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자(HI)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자(VC)는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수평적 집단주의자(HC)는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증시한다(Triandis, 1995; Triandis & Gelfand, 1998). Singelis 등(1995)의 척도는 이 네 하위 유형을 측정하는 Likert형 9점 척도(1: 전적으로 반대, 5: 중간, 9: 전적으로 찬성)의 태도 문항 8개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은 우리나라 대학생 326명에게 이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Singelis 등(1995)의 것과 거의 유사한 요인 구조를 얻어 내었으며,<sup>3)</sup>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신뢰도는 VI=.71, HI=.81, VC=.68, HC=.7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sup>4)</sup> 또한 이 척도는 우리 의식 설문지와와의 상관 분석과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 유형과의 관계의 분석을 통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존 및 예언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김기범, 1996; Kim & Kim, 1997).

**내외통제성 척도**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동조 행동이 개인주의 사회의 그것보다 많은 것은 집단주의 사회일수록 개인주의 사회보다 외통제의 성격유형이 많다는 사실(Bond, 1986; Rothbaum, Weisz, & Snyder, 1982; Weisz, Rothbaum, & Blackburn, 1984)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 외통제형일수록 동조 행동을 많이 하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Lefcourt, 1966; Petri, 199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하여, Nowicki와 Strickland(1973)가 만든 내외통제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정은수와 손보원(1981)이 우리나라 판으로 표준화한 학생용 내외통제 척도를 김인천(1987)이 중·고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일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자기 또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항에 대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예: 누구나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를 예·아니오의 선택

3)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이 척도 표준화의 연구는 Triandis와 Gelfand(1998)의 연구 1을 구성하여, 수직/수평 개인주의 - 집단주의 개념과 그 측정 방법의 문화 보편적인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4) 이러한 신뢰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얻어진 것이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Cronbach  $\alpha$ 를 계산해 보면, VI=.72, HI=.73, VC=.66, HC=.73으로, 대학생에게서 얻어진 그것과 거의 유사하였다.

지에 강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두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본 연구의 참가자들에게 실시해서 문항 내적 일관성에 따른 신뢰도 검사를 하여,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Cronbach  $\alpha$ 가 전체 평균  $\alpha$ 보다 높게 나오는 3개의 문항(7, 9, 17번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2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계산한 22문항 척도의 신뢰도는 .62이었다.

**또래동조성 척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또래동조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오경희(1990)의 또래동조성 척도였다. 이는 본래 또래와의 동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Berndt(1979)가 제작한 20문항 중에서 우리나라 이동 및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11문항을 추출하고, 이어서 오경희가 직접 10항목을 제작한 다음, 예비조사를 참고로 하여 문항을 추출, Berndt의 척도에서 추출된 11문항과 합하여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척도를 필자들이 요즘 학생들의 실정에 타당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16문항은 중립적 행동에 관한 것이 8문항,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것이 8문항으로 되어 있다. “중립적 행동”(neutral behavior) 상황이란 한 학생이 일상적인 어떤 활동을 더 좋아할 때, 또래들이 그에게 다른 활동에 그들과 합류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스포츠, 취미, 오락, 옷, 먹음 장소 등의 선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 상황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등 수행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행동을 또래들이 제안하는 것으로, 여기엔 거짓말, 도둑질, 공공기물 파손, 가벼운 비행 등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나의 친한 친구 몇 명”이 위와 같은 활동에 같이 참가할 것을 종용할 때, 응답자가 친구의 제안에 따라 그 활동에 또래와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대답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또래집단을 “나의 친한 친구 몇 명”이라고 한정된 이유는 대체로 10~11세경이 되면 또래관계에 구조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데(서봉연·이순형, 1987), 보통의 친구 관계에서 서로 우정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강력한 내집단이 형성되므로써, 상호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이 척도에서는 중립적 행동 상황과 반사회적 행동 상황이 하나씩 번갈아 제시되었는데, 중립적 상황과 반사회적 상황 및 그 응답 척도를 하나씩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이 예에서 상황 1은 중립적 행동 상황, 상황 2는 반사회적 행동 상황이다.

**상황 1**

학교가 끝난 후 나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집으로 가다가 PC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한 개씩씩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도 하고 잘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① 반드시 | ④ 아마도 |
| ② 대체로 | ⑤ 대체로 |
| ③ 아마도 | ⑥ 반드시 |

그냥 혼자 집에 간다. | 친구들과 PC방에 간다.

**상황 2**

나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어떤 작은 가게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엔 주인이 보이지 않고, 주변엔 사람의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길에 인접한 진열대 위에는 많은 과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한 개씩 몰래 집어 갔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도 가서 하나를 몰래 집어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① 반드시 | ④ 아마도 |
| ② 대체로 | ⑤ 대체로 |
| ③ 아마도 | ⑥ 반드시 |

과자를 몰래 집어오지 않는다. | 친구 따라 과자를 몰래 집어온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에게서 계산한 중립적 행동 상황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57이었고, 반사회적 행동 상황의 신뢰도는 .73이었다.

**절차**

후기 필자가 선정된 학교의 해당 학급 담임 선생님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소개와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린 다음, 각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5분이었다.

**결과**

**문화성향**

각 참가자에게서 얻은 개인-집단중심 성향 척도의 결과를 VI, HI, VC, HC 별로 평균치로 계산하여, 각 피험자별로 VI와 HI의 점수를 합한 평균치를 개인중심 성향(TIND) 점수로 삼고, VC와 HC의 점수를 합한 평균치를 집단중심성향(TCOL) 점수로 삼았다. 따라서 각 척도는 모두 1~9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화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다음 표 1은 이들 간의 적률상관계수(r)를 제시한 것이다.

표 1. 문화성향 척도의 하위척도치 간 상관(r) (n=540)

	HI	VC	HC	TIND	TCOL
VI	.26**	.01	-.03	.80**	-.01
HI		.09*	.11*	.79**	.11*
VC			.59**	.06	.88**
HC				.05	.90**
TIND					.06

\* p < .05    \*\* p < .01

표 1에서 보면, 개인중심성향의 하위 척도들은 집단중심성향의 하위 척도 및 전체 집단중심성향과 별로 커다란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다. 반면에 개인중심성향 하위 척도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r = .26)이 보이고, 전체 개인중심성향과 높은 상관(r = .80과 .79)을 보이고 있다. 집단중심성향의 하위 척도들 간에는 유의미한 높은 상관(r = .59)이 있지만, 이들과 전체 개인중심성향과는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과 전체 집단중심성향과는 아주 높은 상관(r = .88과 .90)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공호와 김소연(199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체로 기대하였던 바의 것이다. 여기서

특히 집단중심성향과 개인중심성향의 하위 척도들과 각각 전체 집단중심(TCOL) 및 전체 개인중심(TIND) 성향과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는, 이들 TCOL과 TIND를 각 응답자의 집단중심성향과 개인중심성향의 원점수로 삼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근본 목적은 두 문화성향(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 집단의 동조 행동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각 응답자별 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의 점수를 바탕으로, 조공호와 김소연(1998)의 중앙치 분리법에 따라, 전체 피험자의 개인중심성향 분포와 집단중심성향 분포를 각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이중 “개인중심성 고 - 집단중심성 저”인 집단을 개인중심성향의 집단으로, “개인중심성 저 - 집단중심성 고”인 집단을 집단중심성향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sup>5)</sup> 이렇게 하여 얻어진 각 성향별 응답자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성향별 응답자 분포(명)

	개인중심성향 (TIND)	
	저	고
집단중심성향 (TCOL)	저	124 (개인중심성향자)
	고	151 (집단중심성향자)

표 2에서 보면, 이 연구의 전체 참가자 중 전형적인 집단중심성향자는 122명(22.6%), 개인중심성향자는 124명(23.0%)으로 판별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 상관분석의 경우에는 전체 참가자(540명)의 자료를, 문화성향 집단 간의 분석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정된 246명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5) 조공호와 김소연(1998)은 정진경(1990)의 성격할 검사 점수에 의한 양성성(androgyny) 분류 방법을 따라 이러한 중앙치 분리법에 의해 두 문화성향 집단을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치 분리법에 대해서는 정진경(1990)과 Spence, Helmreich와 Stapp(1975)을 참조할 것.

문화성향에 따른 또래동조성의 차이

응답자들의 중립적 행동 상황과 반사회적 행동 상황별 개인별 평균치를 구하여, 두 행동 상황에서의 또래동조성의 지표로 삼았다. 그러므로 점수 범위는 1~6으로, 점수가 클수록 또래동조성이 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문화성향에 따른 또래동조성의 차이를 문화성향과 또래동조성 사이의 상관과 두 문화성향 집단 간의 또래동조성 수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상관분석 전체 응답자의 두 문화성향 점수와 두 또래동조성 점수 간의 상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행동 상황별 문화성향과 또래동조성의 상관(r) (n=540)

	문화성향	
	개인중심성향	집단중심성향
중립적 행동	-.20**	.22**
반사회적 행동	-.08	-.05

\*\*p< .01

표 3에서 보듯이, 문화성향은 중립적 행동 상황에서의 또래동조성과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은 개인중심성향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20, p< .01)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집단중심성향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22, p< .01)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은 두 문화성향과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은 개인중심성향이 적고, 집단중심성향이 클수록 많아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예측한 바대로의 결과이다.

문화성향 집단 간의 비교 표 2에서 선발된 두 문화성향 집단의 또래동조성 수준의 차이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중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의 또래동조성이 개인중심성향자들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t=4.61, df=244, p< .001.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은 두 문화성향 집단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t<1. 이는 앞의 상관 분석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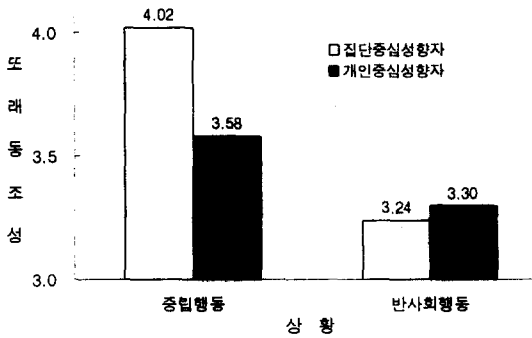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성향별 또래동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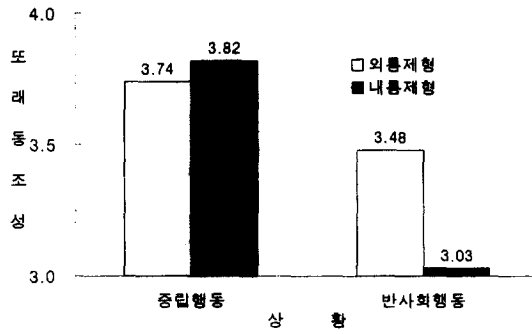


그림 2. 통제유형별 또래동조성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중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화 수준의 비교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중심성향자보다는 집단중심성향자의 또래동조성이 더 큼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내외통제성에 따른 또래동조성의 차이**

22문항의 내외통제척도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중 내통제의 방향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 1점을 주고, 외통제의 방향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 0점을 주어, 응답자별 내외통제 점수로 삼았다. 그러니까 점수범위는 0~22이며, 점수가 클수록 내통제의 신념이 강함을 나타낸다.

**상관분석** 전체응답자의 내외통제 점수와 두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 사이의 상관을 내어 본 결과,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r=.00$ ) 반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 $r=-.23, p<.01$ )이 있음이 검출되고 있다. 이는 내통제의 신념이 강할수록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이 줄어들고, 외통제의 신념이 강할수록 이에 대한 또래동조성이 늘어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내외통제 유형 집단 간의 비교** 응답자들을 내통제형과 외통제형으로 나누어 이들 간의 또래동조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 내외통제 점수 대략 상위 25% 집단( $n=137, 25.4%$ )을 내통제형, 하위 25% 집단( $n=147, 27.2%$ )을 외통제형으로 선별하여, 이들의 두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은 두 통제 유형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t=1.02, df=282, p>.05$ .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은 내통제형보다는 외통제형에게서 유의미하게 많다,  $t=-4.62, df=282, p<.001$ . 이는 앞의 상관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외통제형일수록 또래동조성이 커지는 현상은 반사회적 행동에 국한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문화성향·내외통제성과 또래동조성**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문화성향은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내외통제성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두 행동 상황에서의 또래동조성을 기준 변인으로 하고, 문화성향과 내외통제성을 예언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다음 표 4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4. 문화성향과 내외통제성이 각 행동에 대한 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beta$ )

	중립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개인중심성향	-.21***	-.05
집단중심성향	.24***	-.01
내외통제성	-.02	-.22****
R <sup>2</sup>	.10**	.05

\*\* $p<.01$     \*\*\* $p<.001$



이 표에서 보듯이,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은 개인중심성향( $t=-5.02$ ,  $df=539$ ,  $p<.001$ )과 집단중심성향( $t=5.72$ ,  $p<.001$ ) 등 문화성향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경우 내외통제성은 아무런 예언력을 가지지 못한다,  $t<1$ . 이에 비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은 내외통제성에 의해서만 유의미하게 예언될 수 있을 뿐,  $t=-5.05$ ,  $p<.001$ , 개인중심성향( $t=-1.05$ ,  $p>.05$ )과 집단중심성향( $t<1$ ) 등 문화성향에 의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는 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성향 척도의 분석에서 특히 흥미를 끄는 결과는 응답자들이 보고한 생활수준에 따라 문화성향의 차이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생활수준에 따른 두 문화성향의 평균치와 그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한 다음 표 5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표 5. 생활수준에 따른 두 문화성향의 평균 및 그 차이 (괄호 안은 표준편차)

	생활수준			
	상(n=24)	중(n=472)	하(n=39)	F
개인중심성향	6.53(.77) <sup>a</sup>	6.10(.88) <sup>a</sup>	5.57(.89) <sup>b</sup>	10.00 <sup>***</sup>
집단중심성향	6.80(.76) <sup>a</sup>	6.67(.89) <sup>a</sup>	6.44(1.12) <sup>a</sup>	1.50

\*\*\*  $p<.001$

△ 가로로 접수 간에 같은 문자를 공유하고 있는 쌍 사이에는 Scheffe의 개별 비교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서로 다른 문자의 쌍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중심성향은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F(2, 532)=10.00$ ,  $p<.001$ . 사후검증 결과 생활수준의 “상”과 “하”, “중”과 “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중심 성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 지수와 1인당 GNP 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 $r=.77$ )이 있어서(Hofstede, 1991), 소득이 높아질수록 개인중심성향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

추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중심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Triandis, 1989, 1990). 그러나 집단중심성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발달 시기로 볼 때 청소년기는 집단, 특히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단중심성향은 개인중심성향만큼 생활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성향 척도가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 1의 일차적인 목적은 문화 수준에서의 동조 행동의 차이(조금호, 1999a, 2000; 한규석, 1991; Bond, 1988; Bond & Smith, 1996; Furnham, 1984; Mann, 1988;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0, 1994, 1995; Triandis et al., 1988 등)가 우리 사회에서의 청소년 초기의 학생들의 문화성향의 차이에 따라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집단중심성향자의 동조 행동이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많은 것은 일상 생활에서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중립적 행동 상황에 국한되지, 반사회적 행동 상황에서는 응답자의 문화성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사회적 행동과 비교해 볼 때 중립적 행동은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또래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행동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중립적 행동에 대한 동조 행동은 자신의 선호와는 다르지만, 또래집단과의 조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집단중심성향의 특성이 자기를 집단의 일부로써 파악하고,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에 선행시키며, 집단의 원활한 결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단에 강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 것(Triandis, 1989, 1990)이라고 볼 때, 집단중심성향이 높을수록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중심성향의 특성은 자기를 집단과 별개의 독특한 단위로써 지각하고, 개인의 목표 추구가 집단에 누를 끼치더라도 개인의 목표를 강조하며, 집단의 결속에 관심이 적고,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Triandis, 1989, 199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개인중심성향이 높을수록 또래동조성이 낮아지는

것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지금까지 동조 행동의 문화차를 밝혀 온 연구들은 대체로 Asch형의 동조 실험 장면에서 피험자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들이었다(Bond & Smith, 1996 참조). Asch형 동조 실험 장면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선분의 길이 비교와 같은 것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중립적인 행동 상황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립적 행동 상황에서의 또래동조성은 집단중심성향자일수록 더 강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동조 행동의 문화차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은 문화성향이 아니라 내외통제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행동은 중립적 행동과 달리 선·악의 도덕적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다.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의 통제가능성의 차원(Weiner, 1986)이 중요하게 된다.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지각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거나 책임 추궁을 당할 만한 행동은 스스로 통제하고 하지 않을 것이다(Bandura, 1997). 따라서 어떤 행동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다른 외적 요인, 즉 운이나 재수 또는 타인의 압력과 같은 요인으로 지각하므로써, 자신은 스스로의 행동과 그 선택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외통제성향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덕성 발달은 내외통제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Flavell, 1985)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도덕적 판단이 따르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과 내외통제성 간의 밀접한 관련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에서 다루는 반사회적 행동들은 대부분 비행청소년들이 보이는 행동들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외통제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박영신·김의철, 1998; 박종화, 1996; 이연근, 1997)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 입각해서 보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조의 문제는 내외통제성과 관련된 도덕 판단 능력의 문제이지, 문화성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보

기는 힘들다. 따라서 앞으로 동조 행동에 관한 연구는 반사회적 행동 상황을 제외한 중립적 행동 상황에 국한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부차적인 목적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동조 행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집단주의 사회에 외통제형의 사람이 많기(Bond, 1986; Rothbaum et al., 1982; Weisz et al., 1984) 때문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외통제성은 반사회적 행동의 상황에서만 영향을 미칠 뿐, 일상적인 중립적 행동 상황에서는 또래동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의 내외통제성 수준(각각 평균 13.99와 14.31)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t < 1$ . 이는 집단주의 사회일수록 외통제형의 성격 유형이 많다는 결과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성향이 일상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내외통제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동조 행동의 문화차는 문화유형에 따라 내외통제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 연구 2

연구 1에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동조 행동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문화간 비교 연구의 결과가 한 문화 집단 내의 구성원들의 문화성향의 차이 비교에서도 그대로 검증됨이 밝혀졌다. 즉, 도덕적 합의를 갖지 않는 일상생활의 중립적 행동 상황에서의 또래동조성은 집단중심성향자의 경우가 개인중심성향자의 경우보다 더 컸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래집단의 중요성 인식과 그들에의 감정적 밀착이 한창 고조되고 있는 청소년 초기(Brown, Clasen & Eicher, 1986; Newman & Newman, 1976)의 고등학교 1학년생(15~6세)에게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대학생 집단(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차재호·정지원, 1993)에서도 같은 결과가 얻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

로 하여 연구 1을 재검해 보려 하였다.

이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사회일수록 동조 행동이 많은 것은 집단주의 사회의 사람들이 개인주의 사회의 사람들보다 내집단의 타인들과 자신의 유사성을 더욱 크게 지각하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개인과 압력을 행사하는 다수(majority)와의 유사성이 클수록 이 다수는 적절한 참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지각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동조 행동도 커지게 된다는 사실(Allen, 1965; Allen & Wilder, 1977; Bond & Smith, 1996; Turner, 1991) 및 개인과 집단의 유사성이 클수록, 그리고 개인이 집단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관심이 많을수록 집단 규범(group norm)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사실(Cialdini & Trost, 1998)에 근거한 추론이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행위의 원동력은 개인의 내적 속성(성격·능력·정서·욕구·의도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립과 자기주장을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독립성과 독특성을 중시하게 되므로, 내집단을 독특한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지각하여, 외집단보다 더 이질적이라고 보게 된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행위의 원동력을 내집단의 규범과 상황에 따른 역할과 의무 등에서 찾기 때문에 내집단내의 순종과 양보 및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결국 집단 규범에의 동조를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 집단들을 분석의 단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이 사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욱 동질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조금호, 1993, 1996, 1997, 1999a, 2000; Markus & Kitayama, 1991, 1994; Taylor et al., 2000; Triandis, 1989, 1990, 1994, 1995 등).

이러한 배경에서 Triandis, McCusker와 Hui(1991)는 중국인이나 하와이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이민(중국계·필리핀계·일본계)들은 내집단(동질성 지각 점수: 6.1~6.7)이 외집단(동질성 지각 점수: 4.8~5.9)보다 더 동질적이라고 지각함을 밝혀, 외집단을 내집단보다 더 동질적으로 지각한다는 사실을 밝힌 서구의 일반적인 연구(Quattrone, 1986)와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Triandis et al., 1991, 방법 2의 결과)에서도 하와이와 미국 본토에 거주하는 백인들은 외집단(동질성 지각 점수: 5.5~6.2)을 내집단(동질성 지각 점수: 5.1~5.8)보다

더 동질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집단 이질성-외집단 동질성 지각의 현상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집단 동질성-외집단 이질성 지각의 현상으로 전도되어 나타나게 된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내집단을 동질적이라고 지각하는 이러한 경향은 바로 이 사회에서 내집단의 규범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결국은 이에의 동조 행동을 야기하게 만드는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우리 사회에서의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의 내집단 유사성 지각의 차이를 통해 확인해 보려 하였다.

## 방 법

### 실험 참가자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180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은 102명(56.7%), 여학생은 78명(43.3%)이었다.

###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 3쪽의 또래동조성 척도, 1쪽의 허구적 합의성(false consensus) 측정 척도, 1쪽의 나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 측정 척도로 소재자를 구성하여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맨 마지막의 유사성 측정 척도 하단에는 성별을 기입하는 칸이 제시되어 있었다. 소재자는 A형과 B형의 두 가지이었는데, 이 두 형은 나머지는 모두 같고, 맨 마지막의 유사성 측정 척도만 서로 달랐다.

### 문화성향 척도 연구 1의 것과 같았다.

**또래동조성 척도** 연구 1에서 사용한 척도 중 중립적 행동 상황의 8문항만을 뽑아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 반사회적 행동 상황에서의 또래동조성은 문화성향에 따라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허구적 합의성 측정 척도** 허구적 합의성이란 “자신의 선택과 판단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고, 기존 상황에 적합한 반면, 이와 대비되는 반응은 희귀하고, 일탈적이

며,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Ross, Greene, & House, 1977, p. 280) 경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향에 따른 내집단과의 유사성 지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한편의 하나로 이러한 허구적 합의성 지각의 차이를 확인해 보려 하였다. 즉,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내집단 성원과의 합의성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려 하였던 것이다.

Ross 등(1997)은 가설적 행동 선택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한 선택지와 배척한 선택지에 대한 일반인의 선택 반응 추정(연구 1), 자기의 개인적 성격·선호·적용문제·신상 변화에의 기대·정치적 태도 등과 같거나 다른 성향을 보이는 일반인의 비율 추정(연구 2), 실제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한 행동과 배척한 행동에 대한 일반인의 반응 추정(연구 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허구적 합의성 현상을 밝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ss 등(1997)의 연구 2의 방법을 인용하여 응답자들의 허구적 합의성 지각 정도를 측정하려 하였다. 즉, “현정부의 대북 정책”, “현정부의 경제 정책”, “FA 제도”, “북한 남자”, “북한 여자”, “미국인”, “일본인”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 중 몇 %가 나와 같은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추정하게 하였다. 이 때 자기가 이런 문항 각각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 몇 %가 자기와 같은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겠는지를 추정해 보아야 한다는 주의를 주었다.

**자기-친구의 유사성 측정 척도** 미국 학생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정도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기와 유사한 정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Holyoak & Gordon, 1983; Srull & Gaelick, 1983). 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기를 참조점(reference point)으로 하여 타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sup>7)</sup> 그러나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인도 학생

들은 이와는 달리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와 유사한 정도보다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더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Kitayama, Markus, Tummala, Kurokawa, & Kato, 1990; Markus & Kitayama, 1991, pp. 231-232에서 재인용). 이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에 대한 지식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더 정교화되고 특출하므로”(p. 232), 유사성 판단에서 다른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Markus & Kitayama, 1991).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향에 따른 내집단의 유사성 지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러한 유사성의 비대칭적 판단 경향을 확인해 보려 하였다. 즉, 친구들이 자기와 유사한 정도에 대한 추정은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더 높겠지만, 자기가 친구들과 유사한 정도에 대한 추정은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려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응답자들에게 자기와 친구(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기호”, “취미”, “가치관”이 비슷한 정도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를 0~100%(0%: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Srull & Gaelick, 1983, 실험 3)에서 시사되고 있다. Srull과 Gaelick(1983)은 Tversky(1977)를 따라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 Tversky(1977)는 마드리드가 뉴욕과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은 뉴욕이 마드리드와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보다 높으며, 재갈이 개와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은 개가 재갈과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보다 높다는 결과에 터해서, 판단 대상 사이의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asymmetry in similarity judgment) 현상을 밝혔다. 그는 이를 판단자에게 더 특출하고, 중요하며, 인지적으로 풍부한 대상을 내면적 참조(implicit reference) 또는 비교의 표준(standard of comparison)으로 삼는 경향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덜 특출하고, 덜 전형적이며, 중요하지 않은 대상(비교의 대상: 이 경우에는 마드리드와 재갈)은 더 특출하고, 전형적이며, 중요한 대상(비교의 표준: 이 경우에는 뉴욕과 개)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지각되지만, 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는 타인보다 자기에 대한 지식이 더 정교하고, 풍부하며, 자기가 타인보다 더 특출한 인지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조금호, 1993, 1996; Markus & Kitayama, 1991 참조), 이들은 자기를 비교의 표준으로 삼아서 타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8) 여기서는 내집단원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다른 사람이 아닌 친구와 비교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6) 수강 신청한 과목 별로 한 학기당 2주를 넘게 결석하면,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F의 성적을 부여하는 서강대학교의 독특한 학사 제도.

7) 이러한 해석은, 미국의 학생들에게서도 이러한 경향은 사적인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이 높아서,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나타나지, 자의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전혀 비슷하지 않다, 50%: 반 정도 비슷하다, 100%: 완전히 비슷하다)에 추정하게 하였다. 이 때 설문지는 “내가 친구들과 비슷한 정도”(예: 내가 친구들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를 추정하게 하는 A형과 “친구들이 나와 비슷한 정도”(예: 친구들이 나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를 추정하게 하는 B형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A·B형 설문지에 모두 남한 남자와 북한 남자, 뉴욕과 서울, 개와 늑대, 남한 여자와 북한 여자, 남한인과 북한인이 비슷한 정도에 관한 문항을 위의 핵심 문항 5개와 섞어서 번갈아 제시하였다. 이들은 관심 분산용 문항들로서 A·B형에 모두 같았으며, 결과 분석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응답자 중 91명(50.6%)은 A형을, 89명(49.4%)은 B형을 평정하였다.

**절차**

실험은 75명과 105명의 두 강의 분반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자는 강의실에 입장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려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정답이나 오답은 없으며,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통계 처리될 뿐, 개인의 응답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하고도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의 설명을 한 다음, 반 별로 A형 설문지와 B형 설문지를 대체로 반반씩 되도록 배부하고, 설문지의 지시문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결과**

**문화성향과 또래동조성**

각 응답자 별 문화성향을 각 하위유형(VI, HI, VC, HC)과 전체(TIND, TCOL)로 계산하여 그 상호 상관을 구하여 본 결과,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VI와 HI는 TIND와(각각  $r = .81$ 과  $.79$ ), 그리고 VC와 HC는 TCOL과(각각  $r = .87$ 과  $.86$ )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나머지 요소들 간에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이들보다 아주 낮은 상관( $r = .13 \sim .30$ )을 보일 뿐이었다.<sup>10)</sup> 다만 연구

9) 모두 전자를 주어로, 후자를 보어로 하여 제시하였다(예: 남한 남자가 북한 남자와 비슷한 정도).  
10) 연구 2에서도 VC와 HC 간의 상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1과는 달리 TIND와 TCOL사이에  $.32(p < .01)$ 의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검출되고 있었다.

응답자들을 집단중심성향과 개인중심성향의 중앙치 분리법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눈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성향별 응답자 분포(명)

		개인중심성향(TIND)	
		저	고
집단중심성향(TCOL)	저	57	34 (개인중심성향자)
	고	32 (집단중심성향자)	57

이 표에서 보듯이 개인중심성향자는 34명(18.9%)이고, 집단중심성향자는 32명(17.8%)인 것으로 판별되었다.<sup>11)</sup>

이 연구에서 또래동조성은 두 가지로 계산하였다. 그 하나는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8개 중립적 행동 문항에 대한 1~6의 평정 점수의 평균을 동조성의 지표로 삼은 것이고, 또 하나는 각 문항에 대해 1~3(비동조)의 척도에 응답한 경우에 0, 4~6(동조)의 척도에 응답한 경우에 1점을 주어 합산하여 동조성의 지표로 삼은 것이다. 전자는 8개의 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나 동조할 것인지 하는 동조강도의 지표로 1~6의 범위를 가지며, 후자는 8개의 행동 중 몇 행동에 대해 동조 행동을 보였는지 하는 동조크기의 지표로 0~8의 범위를 갖는데, 점수가 클수록 동조행동의 강도가 강해지거나 그 크기가 커짐을 나타낸다. 피험자별로 구한 이 두 지표 간의 상관은  $r = .88(p < .001)$ 로 아주 높았다. 따라서 동조크기를 통해 동조량을 계산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1에서와 같이 동조강도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검출되어( $r = .49, p < .001$ ), 연구 1과 유사한 결과가 얻어지고 있다.

11) 두 문화성향자 집단이 대략 23%씩인 것으로 판별된 연구 1에서보다 연구 2에서 그 비율(18~19%)이 줄어든 것은, 연구 1에서는 TIND와 TCOL의 상관( $r = .06$ )이 거의 없었으나, 연구 2에서는 이 사이에 높은 상관( $r = .32$ )이 검출된 때문에, 표 5의 저-저, 고-고 집단에 많은 응답자들이 몰린 까닭이다.

전체 응답자(n=180)에게서 문화성향과 동조성 간의 상관을 구해 보면, 개인중심성향(TIND)과 동조강도 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반면( $r = -.07$ ), 집단중심성향(TCOL)과 동조강도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r = .33$ ,  $p < .001$ )이 검출되고 있다.<sup>12)</sup> 이는 집단중심성향이 강할수록 동조 행동이 많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사실은 문화성향 집단별 동조강도와 동조크기를 제시한 다음 표 7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표 7. 문화성향별 동조성 평균 (괄호안은 표준편차)

	개인중심성향 (n=34)	집단중심성향 (n=32)
동 조 강 도	3.42(.59)	3.91(.60)
동 조 크 기	4.29(1.31)	5.19(1.51)

이 표에서 보면 집단중심성향자의 동조강도는 개인중심성향자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t = 3.38$ ,  $df = 64$ ,  $p < .001$ . 또한 개인중심성향자나 집단중심성향자의 동조량은 모두 아주 높지만(각각 53.6%와 64.9%), 집단중

12) TIND와 동조크기의 상관은  $-.07$ , TCOL과 동조크기의 상관은  $.26$ ( $p < .01$ )이었다.

13) 집단중심성향(TCOL)과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검출된 것은 연구 1( $r = .22$ ,  $p < .01$ )과 연구 2(동조강도의 경우  $r = .33$ ,  $p < .001$ ; 동조크기의 경우  $r = .26$ ,  $p < .01$ )가 같다. 그러나 연구 1에서는 개인중심성향(TIND)과 또래동조성 사이에 유의미한 역상관( $r = -.20$ ,  $p < .01$ )이 있었으나, 연구 2에서는 이 사이에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검출되어(동조강도와 동조크기의 경우 모두  $r = -.07$ ,  $p > .05$ ), 일견 두 연구 결과가 불일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언뜻 보기에 불일치하는 듯한 결과를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여 검증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집단중심성향(TCOL)과 개인중심성향(TIND)의 차이[TCOL-TIND]를 문화성향의 통합 지표(CD)로 하여, 이것과 또래동조성의 상관을 계산하여 보았다. 그 결과 연구 1에서 CD와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의 상관( $r = .31$ ,  $p < .001$ )과 연구 2에서 CD와 또래동조성의 상관(동조강도의 경우  $r = .34$ ,  $p < .001$ ; 동조크기의 경우  $r = .28$ ,  $p < .001$ )이 모두 유사하였다. (참고로 연구 1에서 CD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의 상관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r = .02$ .) 연구 1이나 연구 2에서 모두 집단중심성향을 기준으로 한 문화성향(CD)과 중립적 행동에 대한 또래동조성이 비슷한 크기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적 가치가 동조 행동의 강력한 중재 변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성향자의 동조크기가 개인중심성향자의 그것보다 더 크다,  $t = 2.51$ ,  $df = 64$ ,  $p < .001$ . 이러한 결과는 모두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조 행동이 집단중심성향자의 특징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 허구적 합의성 지각

응답자들이 각 문제에 대해 추정한 허구적 합의성 점수와 응답자 별 7개 문제에 대한 허구적 합의성 추정의 전체 합산 평균치를 자료로 하여, 허구적 합의성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문화 성향에 따른 차이 두 문화성향 집단이 추정한 허구적 합의성의 평균치를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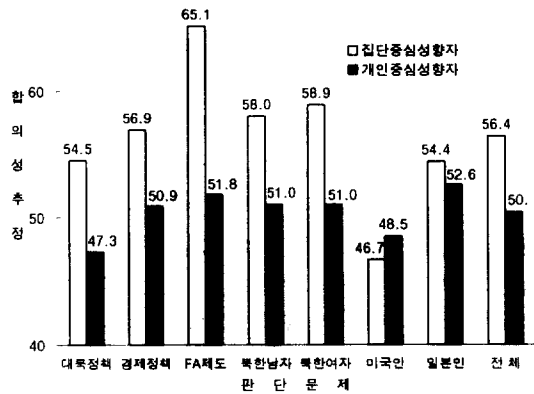


그림 3. 문화성향별 허구적 합의성 추정

그림 3에서 보면, 미국인에 대한 태도 추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별문제 상황과 전체 종합에서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보다 사람들과의 합의성을 더 높게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대북정책( $t = 1.67$ ,  $df = 64$ ,  $p < .05$ ), FA제도( $t = 2.19$ ,  $p < .05$ ), 북한여자( $t = 1.68$ ,  $p < .05$ ), 전체 종합( $t = 2.01$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남자( $t = 1.39$ ,  $p < .10$ )에 대한 태도 추정에서는 대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내집단원과의 합의성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동조강도에 따른 차이** 연구 2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더 강한 동조 행동을 보이는 까닭은 전자가 후자보다 내집단원과의 유사성을 더 크게 지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압력 집단과의 유사성 지각이 동조 행동의 크기를 직접 다르게 한다면, 강한 동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허구적 합의성 지각이 더 클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의 동조강도의 분포를 기준으로 대략 상·하위 25%에 해당하는 두 집단을 취택하여, 전자(동조강도 4.0이상)를 동조집단(50명, 27.8%), 후자(동조강도 3.25이하)를 비동조집단(45명, 25.0%)으로 보았다.<sup>14)</sup> 이 두 집단이 추정된 허구적 합의성 추정의 평균치와 그 차이를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이 표에서 보면, 미국인에 대한 태도의 합의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 영역과 전체 종합 평균치에서 동조집단이 비동조집단보다 더 높은 합의성 추정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인( $t=1.51$ ,  $df=93$ ,  $p<.10$ )의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 수준에 못미칠 뿐, 나머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2.13\sim 3.17$ ,  $df=93$ ,  $p<.05\sim .001$ . 이러한 사실은 압력 집단인 내집단원과의 유사성 지각의 크기가 곧바로 동조 행동의 크기로 연결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기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 지각**

응답자들이 제시된 5개 문제 영역에서 “내가 친구와 유사한 정도”와 “친구가 나와 유사한 정도”를 평정한 점수와 응답자별 5개 영역 전체의 유사성 평정의 평균치를 자료로 하여, 자기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 지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문화성향에 따른 차이** 두 문화성향 집단이 평정한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과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 그리고 이 두 평정을 합한 “나와 친구 사이의 종합 유사성”의 평균치와 그 차이는 표 9와 같다.

이 표에서 보면,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의 유사성 평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을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보다 높게 평정하고 있다. 이 중 기호의 유사성( $t=1.89$ ,  $df=32$ ,  $p<.05$ )과 전반적 유사성( $t=2.72$ ,  $p<.01$ )의 평정에서는 두 유사성 평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중심성향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모두  $t<1$ ), 대체로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보다는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을 높게 평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성 추정의 비대칭성에 관한 Kitayama 등(1990)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친구를 기준으로 하여 나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을 평정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표 8. 동조강도 별 허구적 합의성 추정 평균 및 그 차이

	대북정책	경제정책	FA제도	북한남자	북한여자	미국인	일본인	전체
동 조 자 (n=50)	56.4	59.1	60.0	55.4	56.7	45.4	55.7	55.5
비동조자 (n=45)	44.4	48.4	47.7	45.3	44.7	45.9	47.3	46.2
차 이	12.0**	10.7*	12.3*	10.1**	12.0**	- .5	8.4 .	9.3***

.  $p<.10$  \* $p<.05$  \*\* $p<.01$  \*\*\* $p<.001$  (모두  $df=93$ , 일방검증)

14) 참고로 본 연구에서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로 판별된 응답자 중 동조강도를 기준으로 한 동조자와 비동조자로 동시에 선정된 사람 수는 집단 - 동조자 13명(37.1%), 집단 - 비동조자 4명(11.4%), 개인 - 동조자 6명(7.1%), 개인 - 비동조자 12명(34.3%)으로, 동조자는 집단중심성향자 중에 많고, 비동조자는 개인중심성향자 중에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chi^2=6.56$ ,  $p<.05$ . 그러나 이

렇게 이중 기준으로 동시에 선발된 사람은 집단중심성향자( $n=32$ )의 53.1%, 개인중심성향자( $n=34$ )의 52.9%이었고, 동조자( $n=50$ )의 38.0%, 비동조자( $n=45$ )의 35.6%이었다. 특히 동조자와 비동조자의 36~38% 정도만이 이중 기준에 해당된다는 결과는 문화성향의 분석과는 별도로 동조강도에 따른 분석을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표 9. 문화성향별 나-친구 유사성 평정 평균 및 그 차이

	집단중심성향자(n=34)			개인중심성향자(n=32)			성향집단간 유사성지각차이 <sup>e</sup>
	나→친구 <sup>a</sup>	친구→나 <sup>b</sup>	차이	나→친구 <sup>a</sup>	친구→나 <sup>b</sup>	차이	
의견	53.5	56.3	-2.8	45.0	46.3	-1.3	9.2 <sup>*</sup>
		54.8 <sup>c</sup>			45.6 <sup>d</sup>		
기호	57.9	50.0	7.9 <sup>*</sup>	40.8	40.7	.1	13.5 <sup>**</sup>
		54.2			40.7		
취미	49.4	49.0	.4	37.4	38.7	-1.3	11.3 <sup>*</sup>
		49.2			37.9		
가치관	50.8	50.3	.5	35.3	38.7	-3.4	13.8 <sup>*</sup>
		50.6			36.8		
전반적 유사성	58.8	47.3	11.5 <sup>△</sup>	41.8	44.7	-2.9	10.3 <sup>*</sup>
		53.4			43.1		
전체	54.1	50.6	3.5	40.1	41.8	-1.7	11.7 <sup>**</sup>
		52.5			40.8		

a: 내가 친구와 유사한 정도

b: 친구가 나와 유사한 정도

c: 집단중심성향자의 a, b의 평균. 즉, 집단중심성향자가 지각한 친구와의 종합 유사성 평균.

d: 개인중심성향자의 a, b의 평균. 즉, 개인중심성향자가 지각한 친구와의 종합 유사성 평균.

e: c와 d의 차이. 즉, 친구와의 종합 유사성 평정의 성향집단 간 차이.

\*p< .05 \*\*p< .01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나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을 평정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두 문화성향 집단이 보이는 내집단원과의 유사성 지각의 차이와 관련하여 표 9에서 더욱 중요한 결과는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과 “친구의 나에게 대한 유사성”을 합친 “나와 친구와의 종합 유사성”에서 모두 집단중심성향자의 추정치(c)가 개인중심성향자의 추정치(d)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이다,  $t=1.89\sim 2.66, df=64, p< .05\sim .01$ . 이러한 결과는 집단중심성향자의 동조량이 개인중심성향자보다 큰 까닭은 전자가 후자보다 자기와 내집단의 유사성을 크게 지각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2의 기본 가정의 타당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동조강도에 따른 차이** 이러한 문화성향에 따른 나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 평정의 차이가 동조강도에 따른 동조집단과 비동조집단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문제 영역에서의 동조·비동조 집단의 종합 유사성 평정치를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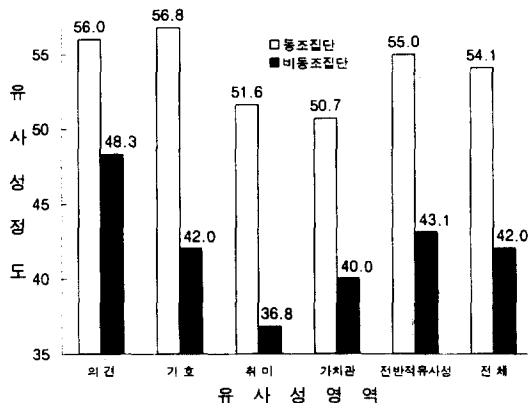


그림 4. 동조집단별 나-친구 종합유사성 평정치

그림 4에서 보듯이 모든 문제 영역에서 동조집단의 유사성 평정치가 비동조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크다,  $t=1.78\sim 3.34, df=93, p< .05\sim .001$ . 동조집단의 내집단과의 유사성 지각 정도가 비동조집단의 그것보다 크다는 이러한 사실이 곧 이 두 집단의 동조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성향, 내집단 유사성 지각과 동조성의 관계

연구 2에서 밝혀 보려 한 기본 가정은 동조 행동의 문화차는 내집단 성원과의 유사성 지각의 문화차 때문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즉, 집단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내집단 성원과 자신의 유사성을 크게 지각하고, 따라서 내집단을 준거로 삼게 되므로써, 내집단에의 동조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내집단 유사성 지각 정도를 통제하여 공변인으로 하고, 두 문화성향(집단중심성향과 개인중심성향) 집단의 또래동조성을 공변량 분석(ANCOVA)하였다. 만일 가정한 대로 동조 행동의 문화차가 내집단 성원과의 유사성 지각의 차이를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내집단 유사성 지각 정도를 통제하여 공변량 분석할 경우, 두 문화성향 집단의 또래동조성의 차이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허구적 합의성 지각에 따른 공변량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집단 유사성 지각 정도의 지표는 두 가지이었는데, 그 중 하나는 허구적 합의성 지각 정도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정부의 대북정책, 경제정책, FA 제도, 북한 남자, 북한 여자, 미국인, 일본인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몇 %가 자신과 같은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추정하게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 7가지에 대한 전체 평균 추정치를 허구적 합의성 지각의 지표로 보고, 이를 공변인으로 하여 두 문화성향 집단의 또래동조성을 공변량 분석하였다.

이때 동조강도를 또래동조성의 지표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나 동조크기를 지표로 삼아 분석하였을 때 모두 문화성향이 또래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F(1, 44) < 1$ . 이러한 결과는 문화성향에 따른 또래동조성의 차이는 실제로 문화성향에 따른 내집단과의 허구적 합의성 지각 정도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 지각에 따른 공변량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집단 유사성 지각 정도의 또 다른 지표는 자기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 지각 정도이었

다. 여기에서는 자기와 친구 사이의 의견, 기호, 취미, 가치관, 전반적 유사성의 종합 유사성(자기가 친구와 유사한 정도와 친구가 자기와 유사한 정도의 합산 평균치)의 전체 평균치를 자기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 지각 정도의 지표로 보고, 이를 공변인으로 하여 두 문화성향 집단의 또래동조성을 공변량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도 동조강도를 또래동조성의 지표로 하였을 때나 동조크기를 지표로 하였을 때 모두 문화성향이 또래동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1, 44) < 1$ . 이러한 결과 역시 문화성향이 또래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와 친구 사이의 유사성 지각 정도를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집단중심성향자들의 또래동조성이 개인중심성향자들의 그것보다 큰 것은 전자가 후자보다 내집단과의 유사성을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이다.

### 논 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중심성향자의 동조 행동(동조량: 64.9%)이 개인중심성향자의 그것(동조량: 53.6%)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거듭 밝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개인중심성향자들의 동조량도 50%가 넘는 것으로 검출된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이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집단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학생들로, 비록 이들은 집단중심성향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인중심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속 문화의 집단주의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같은 개인중심성향자라고 해도 소속 문화의 특징에 따라 서로 행동이 달라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집단중심성향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문화성향과 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개인 수준의 문화성향의 차이에 관한 문화간 비교 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2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결과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은 내집단원과 자기의 유사성을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크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내집단원들과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가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친구들과 의견·기호·취미·가

치관 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의 '허구적 합의성' 지각 정도가 미국 학생들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검출된 문화간 비교 연구의 결과(Choi, Sola, & Cha, 2001)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내집단원과의 유사성 지각의 차이가 동조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는 동조강도가 큰 집단은 내집단원과의 유사성의 지각 정도도 따라서 크다는 결과 및 내집단원과의 유사성 지각 정도를 공변인으로 하여 두 문화성향 집단의 또래 동조성을 공변량 분석하면 문화성향의 주효과가 사라진다는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자기와 친구의 유사성 판단에서 "나의 친구에 대한 유사성"을 "친구의 나에 대한 유사성"보다 더 크게 평정하므로써, 친구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평가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주의의 초점이 자기보다는 내집단원에게 쏠려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집단중심성향자들은 내집단원을 자기와 유사하게 지각하고,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들을 기준으로 삼아 제반 사회 판단을 하게 되므로, 내집단원의 동조 행동이 크게 나타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총 합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연구 1)이나 대학생(연구 2) 집단에서 모두 집단중심성향자들의 동조 행동이 개인중심성향자들의 그것보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동조 행동의 문화간 비교를 통해 개인주의 사회보다 집단주의 사회의 동조량이 큰 것으로 밝혀낸 많은 연구들(Bond & Smith, 1996; Furnham, 1984; Mann, 1986 등 참조)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자기와 내집단의 유사성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동조·비동조 집단의 차이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써, 내집단과의 유사성 지각의 차이가 동조 행동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는 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집단주의 사회에서 동조 행동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집단과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받아들이고, 따라서 내집단원들의 공통성(허구적 합의성)을 사회 규범으로 인식하게 되어, 강한 내집단 정체감을 갖게 되므로써, 내집단을 참조 준거로 삼게 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면, 집단주의 사회에서 내집단원의 동조는 곧 자기확대의 통로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추론이 타당한 근거를 얻게 된다.

### 동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문화차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사회관계 속에서의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파악하며, 이러한 관계 속의 역할, 규범 및 사회적 연대가 개인의 특성보다 더 중요한 행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이 사회에서는 상호 연관된 관계적 존재인 개인들이 이러한 관계와 역할의 연쇄망 속에 참여하여, 상호의존성과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원만한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인간 삶의 이상이라고 본다(조금호, 1993, 1996, 1997, 1998, 1999a, b, 2000; 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Markus & Kitayama, 1991, 1994; Miller, 1997; Tu Wei-Ming, 1995).

이 경우의 상호의존성은 사회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 가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상호의존적인 삶이란 자기의 상실이나 자기에 대한 관심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의·인지·감정·동기가 관계 및 규범에 터해서 조직화되는 것을 의미할 뿐인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 Fiske et al., 1998; Valentine, 1997). 그러므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잘게 나누어지고 분화된 자기의 여러 측면들이 서로 분리되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Bharati, 1985; DeVos, Marsella & Hsu, 1985; Marriot, 1976; Triandis, 1989, 1990), 이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의 설정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여러 측면(예: 사적 자기·공적 자기·집단적 자기, Baumeister, 1986)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상호의존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이상적 인간의 중요한 특징으로 받아

들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조금호, 1998, 1999b). 이러한 통합과 조화는 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정보의 제공원 이면서 동시에 집단 규범의 생성원인 내집단을 나 자신 속에 끌어들이,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데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집단을 자신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로서 자신의 정의 안에 포함시키는 자기확대(self-expansion)가 집단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동기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조금호, 1998, 1999a, b, 2000), 이러한 자기확대의 중요한 통로가 바로 동조 행동이 되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 Valentine, 1997).

이러한 자기확대의 통로로서의 가치 이외에 “집단주의 사회에서…… 동조는 포용력, 자기통제 및 성숙성의 지표”(Cialdini & Trost, 1998, p. 168)라고 간주되는 등 아주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행동으로 수용된다. 이와는 달리 개인주의 사회에서 동조는 부정적 가치를 갖는 배척해야 할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Bond & Smith, 1996; Cialdini & Trost, 1998; Markus & Kitayama, 1991, 1994; Taylor et al., 2000; Triandis, 1989, 1990).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행위의 원동력을 자신 속에 갖추고 있는 개인이 사회 구성과 분석의 기본 단위라고 본다(조금호, 1993, 1996; Triandis et al., 1990). 이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독특성과 자율성 및 독립성의 달성이 사회적 명제이고, 따라서 이러한 독특하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개인이 이상적인 인간이다(Fiske et al., 1998; Johnson, 1985; Miller, 1997). Maslow(1968)의 용어를 빌리면, 이러한 독특성·자율성·독립성을 달성하여 개인이 잠재적으로 지닌 모든 내적 성향을 이루어내는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이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삶의 이상인 것이다(Wilson, 1997). 이렇게 보면, 개인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동기는 바로 자기실현동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Munro, 1997).

이러한 자기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력에 맞서서 이를 제압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개인주의 사회에서 동조는 “굴복이나 복종과 같은 부정적인 함의를 갖는”(Bond & Smith, 1996, p. 126)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동조 행동 연구의 본격적인 장을 연 Asch도 본래 이

러한 개인주의적인 신념에 터해서, 개인이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장면에서는 자기 견해와 다른 집단 의견의 동조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연구를 시작하였다(Bond & Smith, 1996; Cialdini & Trost, 1998; Moscovici,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측과는 반대로 32%나 되는 동조량을 보이자, 그는 당혹하여 “실험집단의 압도적 다수(68%)의 응답은 집단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였다”(Asch, 1951, p. 181)고 자위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동조가 사회 과정을 ‘오염시키며’ 따라서 사회는 그 시민들에게 독립성의 가치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Bond & Smith, 1996, p. 111, 인용문 속의 따옴표는 원문 그대로임). 이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동조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Cialdini & Trost, 1998; Markus & Kitayama, 1994). 그리하여 개인주의 사회, 특히 “미국의 연구자들은 동조 행동의 문화차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자기 문화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받아들이기도 한다”(Taylor et al., 2000, p. 211).

이러한 생각은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전형적인 것이다(Berry et al., 1992). 집단 표준에의 동조는 사회·문화적 진화를 촉진하는 적응적 행동일 수도 있는데(Campbell, 1975; Lumsden, 1988),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동조를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Triandis, 1989). 더욱이 “미국같은 고도로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조차도 사회 규범에의 동조는 사회생활의 일상적 요소”(Taylor et al., p. 211)로서, 사회 자체의 유지와 존속 뿐만 아니라, 환경 속에서의 효율적인 행위의 선택과 수행, 사회관계의 형성과 유지 및 자기개념 관리 등 개인의 적응생활에도 순기능을 가지는 행동인 것이다(Cialdini & Trost, 1998).

실제로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집단이 개인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문화적으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의 이념이 당위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자립적이거나 자기완비적이거나 또는 자기충족적이지는 못한 실정이다”(Markus & Kitayama, 1994, p. 575). 따라서 사회심리학의 연구에서는 서구 사회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동조라는 용어보다는

“세련성(tactfulness)이나 민감성(sensitivity) 같은 용어”(Bond & Smith, 1996, p. 126)로 바꾸어 사용하거나, 동조에 대한 해석에서 집단주의적 특징을 가지는 더욱 긍정적인 속성을 포괄하도록 확장할 필요(Markus & Kitayama, 1994)가 생기는 것이다.

**연령집단 간 문화성향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으로 집단주의의 특징이 강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화성향의 개인차를 측정하여, 집단중심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래동조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청소년들 중 비교적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한 15~6세의 고등학교 1학년들(연구 1)과 비교적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한 19~25세의 대학생들(연구 2)이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 측했던 대로 전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은 개인중심성향보다 집단중심성향이 더 높고, 대학생들은 집단중심성향보다 개인중심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검출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 그림 5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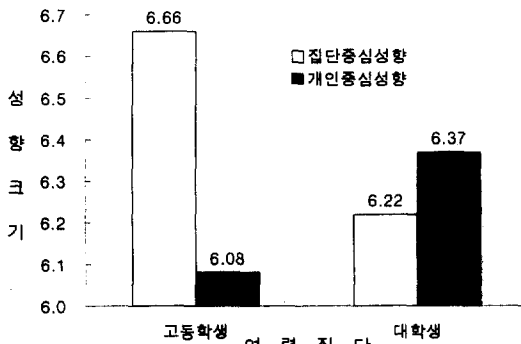


그림 5. 연령집단별 두 문화성향 강도

이 그림에서 보듯이 고등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집단중심성향이 개인중심성향보다 높고,  $t=10.74$ ,  $df=539$ ,  $p<.001$ , 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개인중심성향이 집단중심성향보다 높다,  $t=2.08$ ,  $df=179$ ,  $p<.01$ . 그리고 개인중심성향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들이 높고,  $t=3.92$ ,  $df=719$ ,  $p<.001$ , 집단중심성향은 대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높다,  $t=5.95$ ,  $df=719$ ,  $p<.001$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 중 상대적으로 집단중심성향

이 높은 집단(고등학생)과 상대적으로 개인중심성향이 높은 집단(대학생)을 선정하여 문화와 동조 행동의 관계를 문화 내적 비교의 방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했던 본 연구의 기본 전제가 타당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한 고등학생과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한 대학생들에게서 모두 집단중심성향자의 동조 행동이 개인중심성향자의 그것보다 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적 가치가 동조 행동의 강력한 중재 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내적 비교 연구의 효용성**

본 연구에서는 한 문화 집단 내의 성원들의 문화성향에 따라 동조 행동과 내집단원과의 유사성 지각에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지므로써, 사회 행동의 문화차에 관한 연구는 문화간 비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문화 내적 비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조금호·김소연, 1998; 한규석·신수진, 1999; Bontempo et al., 1990; Singelis et al., 1995; Triandis, 1989, 1990, 1994, 1995; Triandis et al., 1985, 1988, 1990, 1998)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강한 집단주의 사회인 우리나라(Hofstede, 1980, 1983, 1991)의 대학생(연구 2; 조금호·김소연, 1998)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연구 1)도 집단중심성향이 강한 집단과 개인중심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써, 문화 비교 연구에서 이러한 문화 내적 비교 분석의 확대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Berry 등(1992)은 문화간 비교 분석의 연구들에는 측정 도구와 연구 주제의 선택 및 이론 구성 등의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연구자의 자민족중심주의가 끼어 들 수 밖에 없다고 보아, 이러한 문화간 비교 분석의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Markus와 Kitayama (1991)도 문화간 비교 분석의 연구들에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발견된 문화차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의 곤란성,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5) 및 측정 도구의

15) 연구 방법의 친숙도나 선호도에 문화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번역과 균질화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개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문화 내적 비교 분석의 연구에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내적 비교 분석의 결과가 신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동일 문화권의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 집단들에서 수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문화간 비교 분석을 통해 그 결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우선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에서 재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 - 외집단 구별: 문화 비교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김은진 (2001).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내외통제성 및 또래동조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김의철 (1997). 한국 청소년의 가치체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 청소년 문화: 심리 - 사회적 형성요인.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인천 (1987). 내 - 외재적 통제의 소재와 학업성취 및 시험 불안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나은영 · 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나은영 ·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박영신 ·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 29-53.
- 박종화 (1996). 정상 · 비행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통제부위신념에의 차이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 서봉연 · 이순형 (1987). 발달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경희 (1990). 아동의 또래동조성 발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연근 (1997). 청소년의 내외통제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 정은수 · 손보원 (1981). 학생용 내외통제척도 제작 연구: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 Notes, 10(2).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조공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 이원 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4-149.
- 조공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 조공호 (1997). 문화유형과 정서의 차이: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6(2), 1-43.
- 조공호 (1998). 유학심리학: 맹자 · 순자 편. 서울: 나남출판.
- 조공호 (1999a).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33-273.
- 조공호 (1999b). 선진유학에서 도출되는 심리학의 문제. 최상진 · 윤호균 · 한덕용 · 조공호 · 이수원,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pp. 31-161). 서울: 지식산업사.
- 조공호 (2000). 문화유형과 동기의 차이: 한국인의 동기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83-122.
- 조공호 · 김소연 (1998). 겸양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 차재호 · 정지원 (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한규석 (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규석 (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규석 ·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 가치 변화: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

- 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Allen, V. L. (1965). Situational factors in conformity.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 pp. 133-175). New York: Academic Press.
- Allen, V. L., & Wilder, D. A. (1977). Social comparison, self-evaluation, and conformity to the group. In J. M. Suls & R. L. Miller(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pp. 108-207). Washington, DC: Hemisphere.
- Asch, S. E. (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s. In H. Guetzkow(Ed.), *Groups, leadership and men*(pp. 177-190). Pittsburgh, PA: Carnegie.
- Asch, S. E. (1952).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sch, S. E.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70, (9, Whole No. 416).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umeister, R. F. (1986). *Identity: Cultural change and the struggle for sel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08-616.
- Berry, J. W. (1967). Independence and conformity in subsistence-level socie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415-418.
- Berry, J. W. (1979). A cultural ecology of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2, pp. 177-206). New York: Academic Press.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harati, A. (1985). The self in Hindu thought and action. In A. J. Marsella, G. A. DeVos, & F. L. K. Hsu(Eds.),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s*(pp. 185-230). New York: Tavistock.
- Bond, M. H.(Ed.) (1986).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Bond, M. H. (1988). *The cross-cultural challenge to social psychology*. Beverly Hills, CA: Sage.
- Bond, M. H., & Hwang, K. 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pp. 213-266).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Bond, M. H., & Smith, P. B. (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 (1952b, 1956) line judge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 111-131.
- Bontempo, R., Lobel, S. A., & Triandis, H. (1990). Compliance and value internalization in Brazil and the U. S.: Effects of allocentrism and anonym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200-213.
- Brown, B. B., Clasen, D. R., & Eicher, S. A. (1986). Perceptions of peer plea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530.
- Campbell, D. T. (1975) On the conflicts between biological and social evolution and between psychology and moral tradition. *American Psychologist*, 30, 1103-1126.
- Cho, N. K. (1994). The emergence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n organizations. In G. Yoon & S. C. Choi(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Seoul: Dong-A.
- Choi, I., Sola, T., & Cha, U. (2001). *Culture and false consensus*. Unpublished manuscript, Seoul Na-

- tional University, Korea
- Chung, Y. E. (1994). Void and non-conscious processing. In G. Yoon & S. C. Choi(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Seoul: Dong-A.
- Cialdini, R. B., & Trost, M. B. (1998). Social influence: Social norms, conformity, and compliance.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2, pp. 151-192). Boston, MA: McGraw-Hill.
- DeVos, G. A., Marsella, A. J., & Hsu, F. L. K. (1985). Introduction: Approaches to culture and self. In A. J. Marsella, G. A. DeVos, & F. L. K. Hsu(Eds.),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s*(pp. 2-23). New York: Tavistock.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915-981). Boston, MA: McGraw-Hill.
- Flavell, J. H. (1985). *Cognitive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ragar, R. (1970). Conformity and anti-conformity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03-210.
- Friend, R., Rafferty, Y., & Bramel, D. (1990). A puzzling misinterpretation of the Asch conformity stud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 29-44.
- Furnham, A. (1984). Studies of cross-cultural conformity: A brief and critical review. *Psychologia*, 27, 65-72.
- Ho, D. Y. F. (1979).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collectivis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inese case and Maoist dialectics. In L. H. Eckensberger, W. J. Lonner, & Y. H. Poortinga (Eds.), *Cross-cultural contributions to psychology* (pp. 143-150). Liss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 Hofstede, G. (1983). Dimension of national cultures in fifty countries and three regions. In J. B. Derogowski, S. Dziurawiec, & R. C. Annis (Eds.), *Explor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335-355). Lisse, Netherlands : Swets & Zeitlinger.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5.)
- Holyoak, K. J., & Gordon, P. C. (1983). Social reference poi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881-887.
- Johnson, F. (1985). The Western concept of self. In A. J. Marsella, G. A. DeVos, & F. L. K. Hsu (Eds.),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s*(pp. 91-138). New York: Tavistock.
- Kagitcibasi, C. (1994). A critical appraisal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oward a new formulation.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52-65). Thousand Oaks, CA : Sage.
- Kim, K., & Kim, U. (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Vol. 1, pp. 247-259). Singapore: Wiley.
- Kitayama, S., & Markus, H., Tummala, P., Kurokawa, M., & Kato, K. (1990). *Culture and self-cogni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Oregon.
- Lefcourt, H. M. (1966).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65, 206-220.

- Lumsden, C. J. (1988). Psychological development: Epigenetic rules and gene-culture coevolution. In K. B. MacDonald(Ed.), *Sociobiological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pp. 234-267). New York: Springer.
- Mann, L. (1988). Culture and conformity. In M. H. Bond(Ed.), *The cross-cultural challenge to social psychology*(pp. 184-187). Newbury Park, CA: Sage.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68-579.
- Marriott, M. (1976). Hindu transactions: Diversity without dualism. In B. Kapferer(Ed.), *Transaction and meaning: Directions in the anthropology of exchange and symbolic behavior*(pp. 109-143). Philadelphia, PA: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Issues.
- Maslow, A. (1968). *Towards a psychology of being*(2nd ed.). New York: Van Nostrand.
- Matsuda, N. (1985). Strong, quasi- and weak conformity among Japanese in the modified Asch proced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83-97.
- Meade, R. D., & Barnard, W. A. (1973). Conformity and anti-conformity among Americans and Chine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9, 15-24.
- Meade, R. D., & Barnard, W. A. (1975). Group pressure on American and Chinese femal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6, 137-138.
- Miller, J. G. (1997). Cultural conceptions of duty.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pp. 178-192). New York: Routledge.
- Moscovici, S. (1985). Social influence and conformity. In G. Lindzey &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Vol. 2, pp. 347-412). New York: Random House.
- Munro, D. (1997). Levels and process in motivation and culture.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pp. 3-15). New York: Routledge.
- Newman, P. R., & Newman, B. M. (1976). Early adolescence and its conflict: Group identity vs. alienation. *Adolescence*, 10, 127-136.
- Nowicki, S., & Strickland, B. R. (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148-154.
- Petri, H. L. (1996). *Motiv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Quattrone, G. A. (1986). On the perception of group variability. In S. Worchel & W. G. Austin(Eds.), *The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25-48). Chicago, IL: Nelson-Hall.
- Ross, L., Greene, D., & House, P. (1977). The "false consensus effect": An egocentric bias in social percep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279-301.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S. (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5-37.
- Schwartz, S. H. (1994). Beyond individualism-collectivism: New cultural dimensions of values.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85-119). Thousand Oaks, CA: Sage.
- Sherif, M. (1935). A study of some social factors in perception. *Archives of Psychology*, No. 187.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mith, P. B., & Bond, M. H. (1993). *Social psychology across cultures: Analysis and perspectives*.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 Spence, J. T., Helmreich, R., & Stapp, J. (1974).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 43. (MS No. 617)
- Stull, T. K., & Gaelick, L. (1983). General principl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self as a habitual reference point: An examination of self-other judgments of similarity. *Social Cognition*, 2, 108-121
- Taylor, S. E., Peplau, L. A., & Sears, D. O. (2000). *Social psychology*(10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pp. 41-133). Lincoln, NB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4). Major cultural syndromes and emotion.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Culture and emotion: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 Clark, F. L. (1985). Allocentric v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McCusker, C., Betancourt, H., Iwao, S., Leung, K., Salazar, J. M., Setiadi, B., Sinha, J. B., Touzard, H., & Zalaski, Z. (1993). An etic-emic analysi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366-383.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ompenaars, F. (1993). *Riding the ways of culture*. London: Economist Books.
- Tu, Wei-Ming (1986). Selfhood and otherness in Confucian thought. In A. J. Marsella, G. A. DeVos, & F. L. K. Hsu(Eds.),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s*(pp. 231-251). New York: Tavistock.
- Turner, J. C (1991). *Social influence*. Milton Keynes,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Tversky, A. (1977). Features of similarity. *Psychological Review*, 84, 327-352.
- Valentine, J. (1997). Conformity, calculation, and culture.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pp. 97-116). New York: Routledge.
- Weiner, B. (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emotion and motivation*. New York: Springer.
- Weisz, J. R., Rothbaum, F. M., & Blackburn, T. C. (1984). Standing out and standing in: The psychology of control in America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39, 955-969.
- Williams, T. P., & Sogon, S. (1984). Group composition

and conforming behavior in Japanese students.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26, 231-234.  
Wilson, S. R. (1997). Self-actualization and culture.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pp. 85-96). New York:  
Routledge.

## Cultural Dispositions and Conformity to Peers

Geung-Ho Cho and Eun-Jin Kim

Sogang University

It has been found generally that the magnitude of conformity to peers in the collectivistic societies is greater than that in the individualistic societies. This paper was to replicate this phenomena in the Korean adolescents through comparison of conforming behaviors of two groups who have different cultural dispositions from each other. In this study, we divided high school students (Experiment 1) and college students (Experiment 2) into allocentrics (who have collectivistic cultural dispositions) and idiocentrics (who have individualistic cultural dispositions) according to their scores on the INDCOL scale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and observed their choices whether to yield to pressure from peers or not. As anticipated, allocentrics conformed more than idiocentrics, and the formers perceived peers as more similar to them than the latters di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was discussed that allocentrics and people in the collectivistic societies conform more, because they regard the behaviors and opinions of their peers who are similar to them as reference points, according to which they judge the appropriateness of their own responses.

**Keywords :** Cultural Disposition, Idiocentric, Allocentric, False Consensus, Asymmetry in Similarity Judgment

원고 접수: 2001년 1월 16일  
심사 통과: 2001년 2월 7일